

공화, 바이든 '1호 법안' 이민법 반대

“불법체류자 집단 사면 안돼”

미등록 이주자 8년내 귀화 내용 민주당 진보파는 추가 완화 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의회에 보낼 예정인 이민 법안이 공개 직후부터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 단체들이 바이든 당선인의 이민법안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사면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적 그레슬리 상원의원은 법안에 대해 “미국에 사는 모든 불법 이주자에 대한 집단적 사면”이라면서 “안전장치가 없는 무조건적인 집단 사면은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바이든 당선인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고 보지만, 이 나라에 위협하게 있는 이들에 대한 집단 사면은 그중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민 규제를 옹호하는 보수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CIS)의 마크 크리코리안 소장은 “이전 제안들은 적어도 수도꼭지를 끄고 넘쳐흐른 물을 걸러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라면서 “이 법안은 꼭지를 열어둔 채 걸레로 바닥 물을 닦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바이든 인수위원회 당국자가 공개한 이민법안은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이후 3년 동안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Dreamer), 농업 인력 등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8년 만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근래에 도입된 제도 가운데 가장 신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선서를 한 직후에 해당 이민정책 개정안을 발의해 의회로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은 신속 귀화와 적을 이뤄 실시될 수 있는 국경통제 강화 등 규제가 들어있지 않

며, 이 점이 공화당 측의 반발을 부른다고 AP통신이 설명했다.

통신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민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당선인이 정책 우선순위에 둔 감세 폐지, 연방정부 지출 확대 등에도 반대할 게 확실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이민 옹호단체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더 적극적인 이민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자 국의 추방, 구류, 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민주당 내 진보파로부터도 받을 압박을 시사한다고 AP는 평가했다. /연합뉴스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조 바이든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나기 직전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주방위군사령부 야외에서 진행된 고별 연설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바이든은 10살이 되던 해 델라웨어주로 이주해 지금까지 60년 넘게 살아왔다. /연합뉴스

“비트코인·미 기술주 거품”

도이체방크, 전문가 평가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과 미국의 기술기업 주식이 거품이 가장 많이 낀 자산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CNBC 방송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지난 13~15일 시장 전문가 627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9%는 일부 금융시장이 거품 영역에 진입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은 비트코인과 미국 기술주를 거품이 가장 많이 낀 자산으로 지목했다. 거품의 정도를 1~10점으로 측정할 때 비트코인은 거품 정도가 최고 수준인 10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절반에 달했다. 미 기술주도 응답자의 83%가 거품 정도를 7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평균 7.9로 평가했다.

도이체방크는 “대다수 전문가가 비트코인과 기술주 거품 가능성의 상징인 테슬라를 앞으로 1년간 현 수준의 2배로 오르거나 반 토막이 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생각한다”며 테슬라를 더 취약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해 3월 저점에서 최근까지 800% 이상 급등했고, 테슬라도 작년 한해만 700% 올랐다. /연합뉴스

독일, 내달 14일까지 전면봉쇄 조치 연장

의학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방정부 차원 재택근무 명령

독일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학교와 아동 보육시설, 상점의 문을 닫는 전면봉쇄 조치를 연장한다. 사적 모임은 가구 외 1명만 가능하며, 대중교통 수단과 슈퍼마켓 등에서는 의학용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독일은 또 연방정부 차원의 재택근무 명령을 내려 가능한 모든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연방 정부·16개 주지사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연장 및 강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10시간여에 걸쳐 마라톤으로 진행됐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할 때”라면서 “신규확진자 수를 더 끌어내려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지금까지의 봉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교나 아동 보육시설에 대해 긴 토론을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보통 코로나19와

달리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감염이 잘된다는 점을 감안, 학교나 아동 보육시설의 문을 원칙적으로 닫고, 출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어렵게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학교나 아동보육시설 생필품 판매업소를 제외한 상점 등은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하지 않는다.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전면 봉쇄 조치를 14일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다. 사적 모임 역시 가구 외 1명만 허용된다.

공공교통수단이나 실내 슈퍼마켓 등 생필품 판매 상점에서는 수술용 마스크나 FFP2·KN95(한국 기준 KF94) 등 의학용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코와 입을 가리기만 하면 됐다. 재택근무에 관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직장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리만 하는 게 의무화된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의 집계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1369명을 기록했다. 하루 코로나19 사망자는 98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일새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1.5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강한 눈보라로 140중 추돌 지난 19일 일본 동북부 미야기현의 도호쿠 고속도로에서 강한 눈보라로 인해 140여 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한 사고 현장의 모습. 이날 지상에 쌓인 눈이 강풍에 휘날리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차량 140여 대가 잇따라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브라질 대통령 탄핵 탄력...코로나 책임론 확산

좌파는 물론 우파 정치인도 찬성

브라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탄핵 주장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9일(현지시간) 일간 폴라지 상파울루 등 브라질 주요 언론에 따르면 야권이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추진을 시사한 이후 좌·우파 정치인과 법학자, 예술인, 시민단체들이 탄핵 추진론에 가세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좌파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주도했던 ‘거리로 오라’, ‘자유로운 브라질 운동’ 등 유력 시민단체들이 보우소나루 탄핵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아이리스 브리투 전 연방대법관

은 전날 일간 폴라지 상파울루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우소나루 탄핵을 지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부 아마조나스주에서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급증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우소나루 탄핵 추진 주장에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전년에는 “브라질 국민이 민주주의에 살 것인지 독재에 살 것인지는 군이 결정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대통령실 참모를 지낸 예비역 장성은 “브라질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을 모욕하고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연합뉴스

“굿바이 트럼프”...중국 매체 조롱 댓글 봇물

중국 전문가 “미국 소프트 파워 손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중국 누리꾼들이 “굿바이 트럼프”를 외치며 조롱과 비아냥조의 게시물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20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한 총평을 댓글로 달아 주세요’라는 설문 게시물에는 ‘파괴’, ‘부정적’, ‘이기적’, ‘포퓰리즘’, ‘매카시즘’, ‘일방주의’, ‘신뢰할 수 없는’, ‘지저분한’, ‘오만한’, ‘불확실한’ 등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단어로 뒤덮였다.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 현재까지 게시된 설문에는 3000여 개의 ‘좋아요’와 1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해당 게시물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은 ‘파괴’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기존 규칙과 합의, 거래, 다른 국가와 관계 등을 파괴했기 때문이라

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특히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 이미지를 손상한 것이 파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누리꾼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미관계와 국제 관계에 준 변화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었”다면서 “그의 통치가 전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많은 칭찬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누리꾼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어두운 면을 폭로했다며 호감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체제 전복적 파괴’의 특징을 가진 행정부이자 중미관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퇴보’를 보여줬다고 요약할 수 있다”며 “중미관계를 차단해 양국 간 확실성을 불확실성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